

베네수엘라, WBC 첫 우승...대통령 축출한 미국에 승리



결승전서 3-2 신승...수아레스 9회초 결승 2루타 폭발 7경기 1홈런 7타점 타율 0.385 가르시아 '대회 MVP'

베네수엘라가 야구 중추국 미국을 극적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베네수엘라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도포파크에서 열린 2026 WBC 결승에서 미국을 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8강 토너먼트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8-5로 꺾은 베네수엘라는 준결승에서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 이탈리아를 4-2로 물리친 데 이어 미국마저 넘어서며 감격스러운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주관하는 WBC는 이번이 6번째 대회로, 베네수엘라가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결승은 미국이 지난 1월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것과 맞물려 '마두로 더비'로 불리는 등 정치적 관심이 더해졌다. 다만 대부분 MLB에서 활동하는 베네수엘라 구성원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정치적인 질문에 환구했다.

승부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베네수엘라 선발 투수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에리조나 다이나모스)는 미국 강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로드리게스는 3회말 미국 선두 타자 브라이스 투랑(밀워키 브루어스)에게 우전 안타를 내줄 때까지 홀투를 전혀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베네수엘라 타선은 미국 선발 투수 놀런 클레이인(뉴욕 메츠)을 상대로 점수를 켜냈다.

베네수엘라는 0-0으로 맞선 3회초 선두 타자 포수 살바도르 페레스(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우전 안타와 로날드 아루나 주니어(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볼넷으로 1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매클레인의 폭투로 1사 2, 3루가 됐고, 마이켈 가르시아(캔자스시티)가 중견수 희생타를 쳐 선취점을 냈다.

베네수엘라는 1-0으로 앞선 5회초 공격에서 추가점을 뽑았다. 선두 타자 윌리에르 아브레우(보스턴 레드삭스)가 매클레인의 2구째 한 가운데 직구를 공략해 가운데 담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2-0으로 달아났다.

베네수엘라는 이후 불펜을 총동원했다.

5회 우완 에두아르도 바사르도(시애틀 매리너스), 6회 우완 호세 부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7회 좌완 앙헬 세르파(밀워키), 우완 안드레스 마차도(오릭스 버펄로스)를 차례로 투입하며 두 점 차 리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쉽게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8회말 2사에서 마차도가 보비 윌트 주니어(캔자스시티)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며 추격의 여지를 줬다. 이후 마차도는 후속 타자 브라이스 허퍼(필라델피아 필리스)에게 중월 동점 투런포를 헌납해 2-2 원점이 됐다.

경기 종료까지 아웃카운트 4개를 남기고 동점을 허용한 베네수엘라는 9회초 공격에서 다시 힘을 냈다.

선두 타자 루이스 아라에스(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바뀐 투수 개릿 휘틀록(보스턴)을 상대로 볼넷으로 출루했고, 대주자 히비에르 사노하(마이애미 말린스)가 2루 도루에 성공해 무사 2루 기회를 만들었다.



베네수엘라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26 WBC.

연합뉴스

이후 에우헤니오 수아레스(신시내티 레즈)가 휘틀록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7구째 가운데 물린 체인업임을 받아쳐 좌중간 적시 2루타를 폭발, 3-2로 다시 앞서갔다.

베네수엘라는 9회말 마지막 수비에서 다니엘 팔렌시아(시카고 컵스)를 마무리 투수로 내세웠다.

팔렌시아는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를 헛스윙 삼진, 거너 헨더슨(볼티모어 오리올스)을 내야 뜬 공, 로빈 앤서니(보스턴)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베네수엘라 선발 로드리게스는 4%이상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선제 타점을 올린 가르시아는 대회 최우수

선수상(MVP)에 선정됐다. 그는 이번 대회 7경기에서 타율 0.385(26타수 10안타), 7타점을 올리며 우승을 이끌었다. 미국은 팀 3안타 빈공 속에 고개를 떨쳤다.

베네수엘라의 우승엔 KBO리그에서 활동했던 왼손투수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 리카르도 산체스도 힘을 보탤었다.

연합뉴스

김종국 전 KIA 감독, 고향 광주서 재능기부 나선다

이주배경 청소년 구성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서 코칭 21일 윤남종합운동장서 1기 창단식...이종범 등 참석 16명 3개월간 훈련 진행...사회 적응·스포츠 체험 제공



광주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이 첫 발을 내딛는다.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사진)이 함께 하는 리틀 레인보우 야구단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광주 광산구 윤남종합운동장에서 1기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야구단 창단은 야구를 접하기 어려웠던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종국 전 KIA 감독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이종범을 비롯한 전 KIA(전신 해태타이거즈)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더욱 빛낸 예정이다.

리틀 레인보우 1기 야구단은 만 9세의 초등학교생부터 15세 중학생까지 약 16명의 단원으로 구

성됐으며, 우즈베키스탄·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야구단은 광산구 내 어린이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활용해 운영 예정이다. 3개월 간 주 1회 훈련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전 감독 직접 지도하는 훈련은 야구 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을 고려해 기본기 중심으로 구성되며, 부상 방지를 위한 기초 자세 교육과 놀이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야구단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국 전 KIA 감독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야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를 접하고 싶어도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같은 지역에서 살아

가는 아이들이 함께 야구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야구단 창단에 힘을 보탠 박해원 광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창단1·2등)은 "광산구 지역은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해 있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단식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내 스포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공정한 경쟁·스포츠 정신 출발점...꿈 향해 나아가길"

시체육회,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예선대회 현장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 인재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5월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광주시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예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 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는 지난 9일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야구, 탁구 등 22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체육회 임직원들은 보라매 축구공원과 빛고를 체육관을 방문해 축구, 태권도 종목의 선수들을 직접 격려하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소년체전 예선대회를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체육 전문가로서 종목단체와 연계해 학교팀뿐만 아니라 지역 클럽 선수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표선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54회 소년체전에서는 전년 대비 17개 늘어난 75개(금 19, 은 24, 동 32)의 메달을



광주시체육회가 스포츠 인재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예선대회'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체육 인재들이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정신을 배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 선수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늘 곁에서 큰 힘이 돼주시는 지도자와 학부모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체고, 전국학생배드민턴선수권 여고부 '우승'

단체전 결승서 성지여고 3-1 완파

광주체육고등학교가 '2026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여고부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금메달은 지난 2020년 여고부 복식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유아연 이후 6년 만이다.

광주체고는 18일 경남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성지여고를 세트 스코어 3-1(2-0 0-2 2-0 2-0)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결승전에서 첫 번째 단식에서 나선 이윤서(1년)는 박민지를 상대로 2-0(21-18 21-9)으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진 단식에서 김민아(3년)가 김보혜에 0-2(14-21 10-21)로 패했지만, 이어진 복식 2경기를 모두 따냈다. 이어 김나연(3년)-이예은(3년)이 2-0(21-18 21-13)으



로, 이윤서-여서영(2년)이 2-0(21-16 21-12)으로 원승을 거두며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앞서 광주체고는 단체전 첫 경기에서 청송여고를 3-0으로 꺾었고 8강에서 김전여고에 3-1, 준결승에서 창덕여고를 3-2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광주체고 배드민턴팀은 김나연·권혜원·김민아·이예은(이상 3년), 여서영·하의정·정아름·박유미(이상 2년), 이윤서·김민·오연정(이상 1년)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김혜미·김민주, AG 출전권 확보

전국유도대회 겸 국대 2차 선발전서 각각 1·3위 기록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김혜미와 김민주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혜미는 16~18일 충남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6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 -70kg급 결승에서 김지정(순천시청)을 꺾기 한판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혜미는 16강전에서 최재영(한국체대)을 누르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8강전에 올랐다.

이어 8강전에서는 송다영(한국체대)을 상대로 다시 한번 누르기 한판승을 따내면서 기세를 끌어 올렸다. 준결승전에서는 이예람(경남도청)을 만나

허리 후리기 절반 두 차례를 기록하면서 한판승을 거뒀다.

결승에서는 김지정을 한판승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 지었다.

김민주 또한 여자 -78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활약했다. 김민주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에서 김아현(고창군청)을 업어치기 유효승으로 눌렀다.

8강전에서 임기람(한국체대)에게 업어치기 절반에 이어 누르기 한판승을 따내면서 준결승에 이르게 올랐다. 준결승전에서는 정승아(경남도청)와의 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기권패를 하면서 결승행이



무산됐다. 앞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성적과 이번 대회 결과를 합산한 결과 김혜미와 김민주는 상위권에 안착하면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